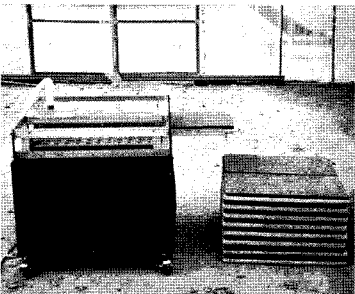


## 채소 육묘용 파종기 개발 경비절감 및 생력화에 큰기대

채소육묘용 파종기가 개발되어 채소육묘시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파종작업을 완전기계화할 수 있게 됐다.

92년의 우리나라 채소재배 면적은 35만6천ha로 전체 밭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채소재배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농촌노동력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작업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에 파종기를 개발한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파종방제기연구팀에 따르면 작업성능은 72구명 육묘상자를 이용, 파종작업시 시간당 고추 75상자, 배추 106상자를 파종할 수 있어 손파종보다 각각 7.5배, 10.6배 능률적이며, 파종경비도 10a당 고추 8천71원, 배추 7천4백24원으로 손파종에 비해 각각 78%, 85%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새로 개발된 채소육묘용 파종기

채소재배 주산단지 등에 채소육묘 파종작업의 생력기계화와 경비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韓·日 농업공동연구 20주년 금후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연구

1974년 6월 7일 조약 제504호로 공포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韓日농업 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농업공동연구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10일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관계관과 우리측 공동연구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갖고 지난 20년간의 공동연구성과와 금후방향에 관한 발표도 가졌다.

지난 20년간의 공동연구사업을 간추려보면 74년 6월부터 82년 3월까지 8년에 걸쳐 「작물 안전다수성 신품종육성」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82년 7월부터 87년 10월까지 5년간에는 「농업기상재해연구」를, 89년 6월부터 94년 5월까지 「농경지 고도이용연구」를 수행하여 주곡자급과 생산성 향상, 기초자료 축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금후 신규사업으로는 3개년에 걸쳐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측에서는 농업기술연구소 등 4개기관,

일본측에서는 농업환경기술연구소 등 3개기관이 참여하여 농약·비료 등 저투입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지원의 재활용 기술, 병해충의 생물학적 방제기술, 토양 및 수질오염 경감 등을 집중연구할 계획이다.

## 지역특화작목시험장 확대설치 김해단감시험장 등 13개 늘려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루과이과운드 타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작목에 대한 기술을 집중개발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은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기술개발로 대외경쟁이 가능한 작목 또는 내수확대가 가능한 특화작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시험장 설립건의가 있는 주산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설립하게 된다.

이미 92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에 10개 시험장이 설립되어 농민중심의 현장기술을 개발보급,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5월16일 정부는 김해단감시험장을 비롯한 13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직제를 공포, 총 23개 시험장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설된 13개 시험장은 91년부터 총3백31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다수의 시험장이 이미 기반조성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연구인력을 충원, 정상적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은 특화작목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을 농민과 함께 개발하는 등 획기적 생산비 절감기술과 가공·건조·저장 및 포장 등에 관한 기술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특화작목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봄감자 수확후 관리요령  
적절한 상처치유처리가 중요**

감자는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수확하는 도중이나 수확후 수집 선별 포장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상처를 입게 된다.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감자 조직으로부터 수분이탈이 촉진되어 양적인 손실을 가져오며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이 침입, 저장 중 부패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모든 식물과 마찬가지로 감자도 상처를 입게되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부위에 보호조직을 재생하는 활동을 하게된다.

감자의 수확후 관리는 저장전 보호조직 재생활동에 가장 적절한 환경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립현황

	기설립(10)	신설(13)
경기	광주(버섯)	연천(올무)
강원	평창(산채)	홍천(옥수수) 철원(특작)
충북	옥천(시설포도)	단양(마늘)
충남	태안(백합) 청양(구기자)	부여(토마토) 예산(국화) 논산(딸기)
전북	남원(고냉지화훼)	진안(숙근약초)
전남	보성(차)	고흥(유자) 해남(난지과수)
경북	의성(작약)	성주(과채류) 청도(복숭아)
경남	창녕(양파) 함양(약초)	김해(단감)

시켜 기계적 상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상처치유(curing)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처의 보호조직은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효과적으로 재생되는데 2.5~5℃에서 2주간이 소요되는 반면 10℃에서는 4일, 20℃에서는 2일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상처보호 조직의 재생이 빠른 반면 세균 등의 활동 또한 왕성하므로 20℃ 이상의 온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온도뿐 아니라 습도도 매우 중요한데 상처조직 외부의 습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상처조직의 건조를 가져와 보호조직 재생을 억제하며 지나친 과습은 오히려 보호조직의 재생을 지연한다.

따라서 상처치유는 12~18℃의 온도와 80~85%정도의 습도 조건에서 10~14일정도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우리나라 봄감자 수확시기는 고온기와 조우되기 때문에 수확 후 곧바로 통기가 잘되는 창고로

옮겨 적당한 높이로 쌓은 후 물기를 머금은 거적 등으로 덮어 10일정도 보관한 후 저장고에 입고하거나 출하하는 것이 좋다.

**벼직과 7만3천ha 파종완료  
제초제 제때사용 잡초막아야**

5월말로 마무리된 올해 벼 직파재배는 당초계획면적 7만ha를 넘어선 7만2천8백5ha에 파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관은 5월 말 현재 직파재배포장은 입모수가 양호한 편으로 평방미터당 입모수가 1백20개가 넘는 과다한 논도 있어 이제부터 알맞는 제초제를 골라 적기에 뿌려 잡초발생을 막는 일과 중간물떼기를 철저히 해 쓰러짐에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농약정보**